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와의

# 동행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 주안에 평안하시지요. 소식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곳은 항상 그렇듯이 봄이 되면 집시 마을마다 장년들은 일을 찾아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떠나고 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떠난 후 생계를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쭈거나 산 버섯을 따서 생활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생활방식은 부모를 따라가니 여전하고, 공부도 초등학교만 나와 자기 이름 정도 쓸 줄 알면 된다고 학교를 안 보내고 12세가 되면 돈벌이를 보냅니다.

요즘은 방학이라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산 버섯을 따러 가서 낮에는 집에 없지요.

장년들이 빠져나간 교회도 표가 나고, 몇 가정은 해외로 일을 떠난 후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이곳 친척들을 불러 노동일을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집시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여름성경학교인데 그동안 준비를 하여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저도 후속치료와 몸의 이상 증세로 안식년 차 한국에서 몇 개월 휴식 후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용인과 기도원을 오가며 심과 준비를 하였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연락을 다 드리지 못하였지만 늘 기도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祈禱의 통로

## 겨울 집시어린이 부카레스트 문화탐방



집시 마을 어린이 35명 장년 등 40명이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에 있는 동물원 구경과 시내,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샌드위치로 세끼를 해결하고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니 피곤해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마을 안에 주로 생활하는 아이들이라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없어 이런 프로그램이 성장기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매년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와는 달리 집시 아이들의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잘 선택하여 사회의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 7월 집시어린이 여름성경캠프

올여름도 세 곳 집시 마을 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62명, 장년 8명 등 70명이 7월 8일~7월 12일까지 5일간 함께 합숙하며 성경캠프를 진행하였고 2박 3일간 여자 청년들과 남자 아동 대상 32명, 2박 3일간은 남자 아동과 청소년(30명)을 분리하여 복음과 성경 말씀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성경캠프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는 것은 예배 중에 떠들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태도입니다 성경 암송대회에서 네오가 1등, 오이에슈티 맥이 2등 하여 선물도 받았고요. 올 여름 성경캠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티그베니집시마을에서 친구 따라 온 여자 청년 3명과 남자 아동은 캠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현재 티그베니집시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그루야 형제가 연락을 주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재정도 많이 들고, 육신적으로 힘은 들어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 할 수 있고 끝나고 나면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면 8월 중에도 성경캠프를 더 하려고 합니다.

祈禱의 통로

## 집시마을 가난한 로레다나 가정 겨울 화재



오이에슈티 집시 마을 로레다나 가정 흙집에 불이 나서 한겨울 아이들이 풀더미에 자고, 말 먹이용 마른 풀 더미 위에서 자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공사를 하였습니다. 구제로 지붕, 천장, 벽공사, 소바(벽난로)설치, 음식, 인건비 지불로 지원하였고, 동네 정교회에서 벽돌 일부 지원, 현지인들의 헌 침대, 의류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함께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예수님께서서 흐뭇해 하시겠지요.



에스테라와 에마

## 집시교회 이런 저런 이야기들

## 오그라더교회

코스민, 에밀리아 부부는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오그라더 집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피테슈티 단형제를 통해 교회건축을 하기까지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였고, 단형제는 해외교회를 통해 재정을 지원받아 교회건축을 하였습니다. 단은 건축한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코스민, 에밀리아 부부는 찬양사역을 하는데 둘 다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 문맹이고, 찬양할 때 음이 안 맞지만, 대중가요 부르듯 집시 특유의 구성지고 절절하게 불러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은혜를 많이 받고, 특히 집시들이 코스민 찬양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문맹인 집시교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계산을 못 하니 사람들이 속이고 없는 삶에 빛만 늘어 가는 집시들의 고단한 삶입니다.

## 두미레슈티집시

두미레슈티집시 교회 로디카 자매가 마을에서 다나, 티아, 아나 등 3명을 전도하여 기도하며 양육을 위해 애쓰며 수고합니다.

티아는 시어머니고, 다나와 아나는 동서인데, 티아는 4번 결혼하였으나 지금 혼자이고, 다나는 28세로 아들을 데리고 세 번째 남자 아디넬과 살고 있지요.

아디넬은 술주정뱅이라 다나는 또 헤어지려고 하고, 로디카자매는 함께 기도하며 더 참아보자고 보듬고 있고요. 아나는 12세 어린 나이에 아주 못된 엘비스를 만나 몇 년째 매일 맞고 사는데, 말 채찍으로 맞아 기절하고,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려서 병원에 실려가고, 앞니는 다 부러지고, 온몸이 상처 투정이지요.

아나 부모를 협박하여 딸을 데려가지도 못하고, 올해 아나가 아이를 분만했는데 이번 주 또 때려서 아기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로디카 자매가 기도해주며 말씀으로 힘을 주려고 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마음을 쓰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두미레슈티 교회에 나오던 요느츠 엄마 발레라가 아들이 있는 스페인을 다녀온 후 집을 나갔는데 인편에 들리는 소식은 다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 홀로린은 차정비 기술고등학교에 다니다 엄마의 가출로 학업은 중단한 상황인데 9월 학기 학교를 다시 다니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미레슈티교회 사역자 크리스티 형제는 송어 양식장에서 나온 후 6개월 정도 직업이 없이 교회사역만 하다가 알린이 있는 영국에 가서 고철 줍는 일과 건축노동을 2개월간 하고 6월 말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송어장 주인 복단이 한 달 휴가로 스페인 포도농장에 다녀오라고 하였는데, 다녀오니 루마니아인 직원을 고용하고 크리스티 형제를 내보낸 것이지요.

크리스티 형제와 가족이 생활을 해야 하니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집시교회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개월간 아내인 로디카 자매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 祈禱의 통로

두미교회 크리스티형제와 코스민, 다나



# 집시교회 이런 저런 이야기들

## 오이에쉬티, 로툰다, 티그베니

오이에쉬티 집시교회는 빌라자매가 교회를 관리하고, 아우렐, 크리스티 형제가 사역을 합니다. 이탈리아로 간병인 일을 떠났던 니나가 교회에 스피커 세트를 헌물 하였습니다.

로툰다집시교회는 트라이안형제와 그라치안, 커털리나부부가 어린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라치안은 오이현지교회 벨루형제 아들인데 벨루형제는 올 겨울 심장마비로 소천하였습니다. 커털리나는 부카레스트 대학에 다닐 때 한국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 교회를 다니다 그라치안을 만나 결혼하여 지금 오이에쉬티 현지인 마을에 살면서 어린이 사역을 돕고 있지요.



예수님 믿기로 한 티그베니청소년들

티그베니 집시 마을 그루야 형제가 8년 만에 신학공부를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루야형제는 첫 선교의 열매이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마을에 전도도 많이 하여 지금 티그베니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50대 나이에 치아가 다 빠지고 두 대만 남아있어 발음이 샌다고 형제들이 설교를 못 하게 하여 주로 전도만 합니다. 재정을 모아 틀니를 해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루마니아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1. 올 여름부터 미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집시 청소년 제자 프로그램(성경공부)과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2. 아르제쉬에서 공부하는 집시아동들을 위해 숙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3. 2년째 중단된 벌첼레 기도방 건축을 일부 가족의 지원으로 수도관, 하수도공사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외,내벽 및 내부공사를 위해 8.000 EURO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후원계좌 국민은행 760-21-0243-844(김수선) - 기아대책 지로용지로 하셔도 됩니다